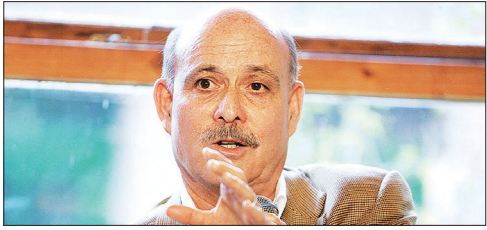


〈한계비용제로사회〉서 찾은 협력적 공유 사회로 가는 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한계비용제로사회〉저자

인류 역사서 행복은 공감적 참여서 비롯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한계비용제로사회〉를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를 강조한다. 공유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저서의 일부를 발췌했다. <편집자주>

협력적 공유사회가 그 어떤 영역에서든 경제활동의 10~30퍼센트만 점유하게 되면 2차 산업혁명의 수직 통합형 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히 소멸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제로 수준 한계비용이 경제활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협력적 공유사회로 옮겨 놓음에 따라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은 글로벌 상거래 및 교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점점 더 상실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413p.)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정도이다. 사회적 자본이 핵심 자산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만들어 내는 결속과 신뢰를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비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들이 영리 부문 사회적 기업가들에 비해 이점을 누린다. 전자의 주요 동기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사회적 선(善)을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433p.)

풍요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그렇지 않다. 풍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찾는 데 있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진 않는다”라는 간디의 말은 여전히 황금률로 작용한다.(443p.)

인류 역사의 역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공감적 참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자신의 삶이 끝나 갈 때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물질적인 이득이나 명성, 행운에 관한 경험이 기억 속에서 두드러지는 경우는 드물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들은 공감적 조우이다. (485p.)

협력적 감성은 개개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개인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더 큰 집단의 행복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협력 정신이 이제는 생물권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든 생물이 생물권 전체에 존재하는 여러 생태계의 무수한 공생 관계와 협동 관계에 내포된다는 사실과 전체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이 각 부분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젊은 세대는 생물권이 지구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488p.)

공동체·환경 운동, 불교가 선도할 명제

공유사회,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듯이 미래 사회는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공유사회와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 운동의 붐이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표방한 협동조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잇달아 출범했다. 주요 계간지의 의제와 담론을 연결했던 말 역시 ‘연대’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바탕에는 2012년 12월 통과된 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부터 강조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다. 실제로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미 다른 지방 도시들도 서울시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목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불교 사상으로 본 공유사회

공유 사회의 기본은 자원이 아닌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는 부의 편중,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주진 않는다”라는 간디의 명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계에 달했다.

결국 인간들이 협력과 공유를 통해 삶을 영위하겠다는 공유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다. 특히 인간을 포함해 나아가 생물권까지 포괄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공유사회의 원리는 불교 사상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화엄경〉에는 제석천이 수지한 ‘인드라마’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사실 ‘인드라마’는 불교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드라’라는 그물은 한없이 넓고 그 그물의 이름새마다,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주는 관계다. 그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지만 아니라 그물로서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계상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라는 의미다.

〈화엄경〉을 압축한 의상대사 ‘법성계’의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다(一中一切多中一) 하나가 곧 모두가 되고 모두가 곧 하나다(一即一切多即一)’는 구절도 총칭한 인간관계로 이뤄진 공유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기실 자연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굴레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불교의 공양계승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관계(五觀偈)라고도 하는 공양계는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에 담긴 다섯 가지 의미를 관찰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 앞에 놓은 발우. 불교사상에 담긴 생태적 삶의 실천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유사회로 가는 원동력이다.

인간의 협력 의존하는 공유사회

서로 비추는 ‘인드라마’와 닮아

발우공양도 공유의 가치를 보여줘

신행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공동체 운동에 천혜의 조건

빈부·외로움 극복에 도움

생태 발자국 줄이기에 나서야

것으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나의 곡물을 수확하기 까지 태양은 자신을 태워 빛과 열을 내고, 대지는 이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자리와 양분을 내놓는다. 그래서 공양계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여기에 투여된 은혜와 노고를 상기시키는 연기적인 통찰이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불교의 정신은 발우공양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동체의 대중이 발우 안에서 극히 절제된 음식을 나누는 것도 공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유의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불교사상은 빈부 격차와 현대인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둔 불교

불교가 공유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복원이다. 공유 사회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실제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에서 “만약 공유사회의 필수적인 주체가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공동체 운동은 공유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운동을 실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안에서 이 같은 공동체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신라시대 이후 신양공동체인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결사조직이다. 이곳은 길 흥종조, 재난구조 등의 역할도 하면서 이후 점차 마을 공동체로 변화된 대표적인 불교 공동체이다.

신라 후기와 고려 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했고, 불상, 종, 석탑, 사찰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 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나타났으며,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국가가 위급할 때에는 예비군 기능을 했다고 전해진다.

현대적 불교 공동체의 지향점

현재 한국불교에서 현대적 공동체 운동은 시작 단계이다. 종단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련의 불교운동들이 불교와 사회개혁에서 문명적 대안인 그 궤적을 남긴 사례가 많다. 선우도량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법 스님이 인드라마생명공동체를 출범하고 실상사에서 귀농운동을 시작했으며, 법륜 스님은 제도권 밖에서 정토회를 이끌며 청년 불자들을 불교로 이끌었고, 생태·통일 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조계사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불교계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기업도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공동체 운동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레미 리프킨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정도”라면서 “사회적 자본이 핵심 자산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만들어 내는 결속과 신뢰를 반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익보다는 ‘사회적 선(善)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도 불교 사회적 기업이 확산돼야 할 이유이다.

불교, ‘생태 발자국’을 생각하라

공유 사회의 도래가 시급한 것은 전지구적 문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적 개념은 ‘생태 발자국’이다. 이는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말한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ha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3.0ha에 이르렀다.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

당장 불교계가 실천할 수 있는 사찰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 매스 등이다. 특히 바이오 매스와 지열, 태양광 등은 상당 수의 사찰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불교계가 주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종교·시민 협력 단체도 출범했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조직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불교생태문헌연구소를 비롯해 원불교 환경연대, 천주교청초보전연대, 푸른아시아, 피스 빌리지네트워크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謹賀新年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

www.withbuddha.co.kr